

# 곡성물, 2026년 신규 입점 업체 모집한다

### 수수료 없는 판매 구조로 지역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지원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역 농가와 생산자가 직접 만든 농특산물과 가공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의 2026년 신규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곡성물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회원 수 3만 6천 명을 돌파하고 누적 매출 25억 원을 넘어서며 지역 대표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정기 기획전과 시즌별 특별전 운영을 통해 꾸준한 소비자 유입을 이끌었으며 백화점과 하나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까지 확대하며 판로 다각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곡성물은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곡성군은 2026년 신규 입점 업체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이 이 유통망에 참여해 안정적인 판매와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농축임업인, 생산자 단체,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곡성물에 입점한 업체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 판매자가 제시한 보장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카드 결제와 결제 대행 수수료 역시 판매자 부담 없이 운영된다. 여기에 택배비 지원이 더해져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진입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 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곡성물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의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시즌별 품목별 기획전과 할인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해 상품 노출과 판



매 확대를 돕는다. 특히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와 업체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안내와 상담을 병행한다.

입점 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입점 업체와 판매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점 업체는 원산지 표시와 상품 정보 제공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입점 선정 결

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후 상품 정보 등록을 거쳐 곡성물을 통한 판매가 시작된다.

곡성물 관계자는 "2025년 곡성물의 성과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곡성물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구례군은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 구입비를 비롯해 농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

##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농촌 인력부족 해소 기대

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기종을 농업인이면 누구나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임대료 감면 정책은 임대 농업기계 활용도가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농업기계 이용 시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광양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영농 준비 본격화

### 전화·온라인·읍면·동 상담소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

광양시는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을 지원하고, 작물별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 교육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되며, 단감, 시설채소 및 노지채소, 치유농업, 농식품 가공 창업, 아열대과수 등 총 10개의 전문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공익 직불제 의무교육을 교육 시작 전에 병행 운영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제도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 앱 '농업e지' 홍보와 농작업 중 빈번하

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은 광양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네이버폼), 주소지 제한 없이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기후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습득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 영암군, 10곳 버스승강장 추위 차단시설 설치

###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시범사업 마쳐

영암군이 지난달 31일 버스승강장 10곳에 추위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마쳤다.

겨울철 추위에 군내 버스를 기다리는 군민의 불편을 더는 등 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한 것.

영암군은 10곳에 추위를 막는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구조상 추위 차단시설 설치가 곤란한 7곳에는 새로운 대기공간을 조성했다.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은 투명 재질로 제작돼 외부의 찬바람을 차단하는 동시에 시야 확보도 쉬워 승강장 안에서 이용객이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마을순회간담회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군내 버스 이용률 등을 반영해 영암읍과 삼호읍 등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승강장을 중심으로 설치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통편의 시설 개선을 마쳤다. 바뀐 버스승강장에 대한 군민 의견을 종합 검토해 올해 1월 안에 5개소에 추가하는 등 설치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계절별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승강장 시설 정비와 교통약자 배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 강진군, 유기농 '음악 듣고 자란 쌀' 미국 LA 첫 수출

### 영동농장 유기농 쌀 10톤 출항, 총 100톤 계약 순차 미국으로 선적

강진군이 농업 현장과 세계 시장을 잇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었다.

강진군이 지난 2일 신전면에 있는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1차 산업(농업)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벼·율에·죽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농업인 12명과 강진군수가 참석해 강진군 농업의 다양성과 발전 방향 및 유통판로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다짐한 데 이어,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음악 듣고 자란 쌀' 미국 수출 현장을 함께 지켜봤다.

이날 상차한 쌀은 엄격한 기준의 USDA(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인 에러헌

(Erewhon) 마켓으로 수출된다. 백미 7톤, 현미 3톤으로 총 10톤의 쌀을 실은 차량은 영동농장에서 출발해 부산항으로 이동한 뒤 해상 운송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진다.

이번 수출은 총 100톤 규모 수출 계약의 첫 물량으로, 향후 추가 선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가 실제 수출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생산자 단체와 함께 강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전략을 병행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장흥군, 동물방역위생시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장흥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동물방역위생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구제역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 실적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 총 4개 분야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장흥군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축산농가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협조하여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역으로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장흥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